

## 벤처기업 윤리경영 성공사례(2)

# 영혼이 있는 기업, 안철수연구소

벤처의 본질이라 함은 도전정신, 창의성, 기술혁신, 가치창출과 함께 나눔과 배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란 경쟁력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내고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기업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윤리경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있는 벤처기업들의 성공사례들을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성공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_ 박현준(연세대학교 교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업의 존재 의미에 충실하는 것이며, 수익은 그러한 건전한 기업 활동의 결과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면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 부정할 유혹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중심을 잃고 몰락의 길로 가게 되기 쉽다.

안철수연구소는 '95년 설립된 이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1위 보안업체로 성장한 데 이어 세계 10대 보안회사를 향한 글로벌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

**이윤은 목적이 아닌 결과이다** '97년 안철수 대표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공학을 공부하던 중 세계적인 정보보안 기업인 맥아피(현 넷웍어소시에이츠)로부터 안철수연구소 인수 제의가 있었다. 맥아피는 바이러스 백신인 '스캔'이라는 제품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당시 이미 일본 유일의 백신소프트웨어 회사인 '제이드'를 사들인 상황이었다. 맥아피는 인수조건으로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했지만 그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벤처기업을 1000만 달러라는 거액에 매각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실현하는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백신업체를 외국자본에 넘김으로써 국내 백신시장을 외국기업에 장악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존재의미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매출액의 사회환원을 통한 복지기금 마련** 안철수연구소는 '02년 5월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사랑의 1% 나누기 운동'과 '사랑

의 도시락 나누기 운동'을 벌였다. 온라인 쇼핑과 보안 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1%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도시락 모양의 저금통을 배포하여 모금하는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을 재단에 전달한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수익이 바람직한 사회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안철수연구소의 이러한 사회사업은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 경영을 통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기업이 초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는 반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독특한 회계방식을 통한 회계 투명성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안철수 대표를 대한민국 대표 CEO 중 한 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차입금 의존도 3.8%, 부채비율 51.38%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매출을 부풀리지 않는 회계방식으로 인한 투명경영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브랜드 가치 형성** 안철수연구소는 기업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애기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 안철수연구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윤리경영을 통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인 것이다.